

북한개발소식

08

2020 August

통권 178호

| 이달의 주제 |

북한경제 현황과 전망, 그리고 우리의 기도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북한경제 현황과 전망, 그리고 우리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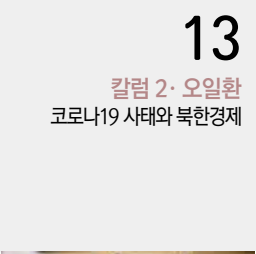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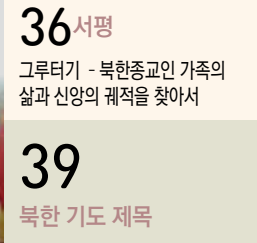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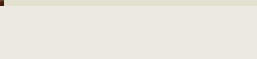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개발소식** 2020 August

CONTENTS

이달의 주제 :

북한경제 현황과 전망,
그리고 우리의 기도

 01 권두칼럼 북한경제 현황과 전망, 그리고 우리의 기도	 07 칼럼 1· 양운철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경제 현황은?
 13 칼럼 2· 오일환 코로나19 사태와 북한경제	 20 칼럼 2· 정은찬 코로나19 사태와 북한경제
 26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17)	 31 북한 뉴스
	 36 서평 그루터기 - 북한종교인 가족의 삶과 신앙의 궤적을 찾아서
	 39 북한 기도 제목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겨울철 2차 유행도 우려된다. 이 와중에 북한은 스스로 성공적인 방역을 통해 감염을 막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의 강력한 감염력을 생각해볼 때 나름 방역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차단하면서 북한 경제 상황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 산하 피치솔루션스는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이 -6%대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¹ 이는 고난의 행군 당시인 97년 기록한 -6.5% 경제성장률에 이어 23년만에 최악의 수치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최근 백인 경찰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루이드에 빗대어 숨을

실 수 없는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² 6월 한달간 있었던 한반도의 긴장과 북한의 도발적인 움직임도 그 근본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있었다.³

익히 알려진 대로 코로나 이전부터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주요 수출품인 지하광물과 의류임가 공품에 대한 수출 금지, 석유 및 전략물자 수입 제한 및 외국 파견 노동자 중단 등 조치로 인해 외화 벌이 및 국가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다. 거기에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것이다. 그렇지만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정보 부족으로 북한 경제의 정확한 상

1 VOA. (2020. 06.20). 피치 "올해 북한 경제 -6% 성장 전망"...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nk-economy-report>>

2 경향신문. (2020. 06. 15). 송영길 "유례 없는 가혹한 제재... 숨 쉴 수 없는' 북한 경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151427011#csidx0011326f5796993b-161dac23b171c4b>

3 BBC 코리아. (2020. 06. 17). 개성연락소 폭파: '서울 불바다'까지 다시 거론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https://www.bbc.com/korean/news-53075967>>

항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다. 대북 제재에도 북한의 물가와 환율 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⁴도 일종의 미스터리이다. 과연 북한 경제의 현상화는 어떠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이며 추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북한 경제 현황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황을 살펴보고 그 여파와 전망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북한 경제의 위축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의 대부분의 대외교역이 중단되면서 수입 중단으로 인한 북한 내 물자 생산 및 주민의 민생에 큰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북한의 환율과 물가 지표 등의 경제 지표에서는 이러한 경제 쇼크가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장혜원, 윤병수는 코로나19가 북한의 공급 문제를 심화시켰지만 당국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 일정 가격 이상 판매를 금지하는 등 시장 물가를 통제하는 동향이 관찰되고 있고 개



〈북중 접경의 무역상들 (VOA 자료사진)〉

인들도 과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인지 소비를 줄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물가 상승이 크지 않은것으로 보았다.⁵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수치보다 실제 북한이 받고 있는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 문제가 갑자기 부각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긴 시계열로 보면 북한은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한 수입 제한 및 공급 부족에 이미 노출 되어있는 상태였다. 특히 북한 경제는 2000년대 초 화폐개혁 이후 시장에서 달러나 위안화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외화 수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북한이 거래와 교역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성민,

김병기는 리포트를 통해 북한이 2017년 이후 무역적자 확대에 의한 보유 외화 감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환율이 안정적인 이유는 가치저장용 외화의 증감만 있었을 뿐 거래용 외화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가치저장용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⁶ 다만 제재가 지속되어 거래용 외화까지 부족해지는 사태로 이어진다면 북한의 경제적 충격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형수, 김석진은 90년 말 기준 북한 외화보유액 추정치에 연도별 북한의 외화 수지를 누적하고 거기에 몇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2018년 말 기준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약 25억-58억 달러로 추정했다.⁷ 불확실한 요소가 많은 가운데 계산된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상당한 액수의 외화보유를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 시행에도 나름의 대응을 해왔다는 분석이다. 거기에 덧붙여 북한은 17-18년도에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면서 대외 수입을 20억 달러 수준으로 유지했는데, 이는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 전에 미리 재고를 확보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는 북한이 2가지 전략을 가지고 제재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그간 축적한 외화가 동나기 전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재를 극복한다는 복안이다. 18년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잇달아 성공시키면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었던 전략이지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두번째 전략은 필수적인 수입만 유지하면서 최대한 버티는 전략인데,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두번째 전략으로 선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현 상황을 진단해본다면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교역중단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북한은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수준은 아닐지라도) 수입을 최소화하고 버티는 정책을 시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경제의 위기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전망

대북제재에 예전에 없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맞물리면서 북한이 이전 90년대 중반 대기근때와 유사한 경제적 위기



〈지난 12월 28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모습〉

4 연합뉴스. (2020. 02. 04). 2019년 북한, 대북제재 지속에도 물가·환율 안정.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088500504>>

5 장예원, 윤병수. (2020). 북한경제이슈분석(7) 북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하나북한정보, 24호

6 문성민, 김병기. (2020).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 BOK 경제연구, 2020-02.

7 장형수, 김석진. (2020).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현대북한연구, 22(1), 8-43.

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석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북한에 90년대 중후반의 경제 침체를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⁸ 해당 리포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94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두 시기 모두 추세적/단기적인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고 그 양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94년 이후 있었던 고난의 행군과 유사한 경제 위기가 2020년 이후에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94년 당시에는 추세적으로는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 대외무역 타격과 석유 등 전략자원의 수입의 어려움이 국가 생산 전반에 차질이 이어졌고, 단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감으로 식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배급 중단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외부의 지원을 요청한 시기는 95년도이지만, 그 이전인 94년부터 GDP가 26% 급락했고 사망률이 24% 증가했으며 영아 사망률도 15% 증가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시작되었다.

2020년의 북한의 상황도 94년과 유사하다. 추세적으로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중 무역이 2017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여 2018년에는 수출은 1/10, 수입은 3/4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거기에 단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국경 차단이 이어지면서 올해 4월에 들어서는 수출입 모두 90%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북한은 중국 의존도가 높고 생

필품이나 식량 등 민생 연관 수입뿐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기계와 원료 각종 부품도 중국 수입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생산 전반에 큰 차질은 물론이고 민생을 위한 생필품 및 식량부족이 우려된다. 즉 추세적, 단기적인 충격이 94년도와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 물론 94년과 2020년의 북한은 기본 경제 바탕이 다르고 중국 및 러시아의 식량 지원 등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 시점에서 90년대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전망은 어둡다는 것이 해당 리포트의 진단이다.

이러한 위기는 북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의 문이 열리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가 증진된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 비핵화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야기는 복잡해질 수 있다.

임수호, 이기동은 작년 12월 있었던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한 당국이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에서 전술적 수정을 가한 병진노선을 들고나온 것에 주목했다.⁹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기업들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시장의 기능을 존중, 활용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북미관계 교착 및 경제위기 상황에서 GDP 대비 국방부문 투

자액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북한이기에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민수부문 투자액이 국방부분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원배분에서 군수부분의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국가 재정 감소로 인한 기업의 자율권 축소, 외부와의 교역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 거래 축소 및 중앙 집권화 강화 등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방향성이 새로운 병진노선을 통해 관찰된다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북미 간 핵협상이나 제재 해제가 단기간 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고난의 행군 당시에도 경제 위기 국면을 선군정치와 같은 군대 중심의 통치로 극복한 만큼 이러한 기조가 부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의 대비와 기도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북한은 대북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외화를 나름 확보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버티면서 외교무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복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상 밖의 사태가 닥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쇼크가 더해져 경제적 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북한이 나름의 대응을 통해 제재와 코로나19에 예상보다 잘 대응하고 하더라도 견디고 버티

는 차원의 대응일 뿐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반드시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 모양새이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경이 열린 이후 북한의 교역, 환율, 물가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해야 한다. 북한이 장기적으로 버티기 기조로 간다면 코로나 19 이후에도 수입을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또한 확보한 외화가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면 결국 환율이나 물가에서 그 신호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신호들이 관찰될 때 북한 당국의 움직임도 연관해서 살펴볼 점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인도적 위기의 발생 여부는 이러한 신호들 속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경제적 어려움의 1차적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보통의 북한 주민들이 될 것이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북한의 빈곤층들은 이미 고난의 행군때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배급과 침체되는 시장 경제 속에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사이 북한 사회가 시장 중심으로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 만

8 이석. (2020).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뷰인가?.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5월호, 3-26.

9 임수호, 이기동. (2020). 안보·경제 딜레마와 북한경제의 '새로운 길'. INSS전략보고, 2020. 06., 83.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해 지난 1월 5일 열린 평양시 결기대회 모습 (RFA)〉

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싶다. 그간 남북간의 보건 의료 협력이나 경제 협력이 이야기되어왔지만 코로나19 청정국이라고 자평하는, 그리고 미래의 협력에 희망을 걸기에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가 급한 북한에게 그리 매력적인 제안이 아닌 듯하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협력보다는 국제적인 NGO를 통한 지원, 협력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왔던 비공식적인 방식도 비중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2020년은 북한에게 상당히 힘겨운 시기가 되는 분위기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주변 외교 환경도 녹록치 않다. 북한과 대화를 꺼리지 않았던 미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 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가 홍역을 앓으면서 북한 이슈가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난 모양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북한 측이 남한에 대한 도발적 인사와 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액션을 취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느끼는 답답함을 일부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역으로 북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되도록 기도하자.

코로나19 라는 전대 미문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흔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보잘것 없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도 사용하시어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들의 향방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경륜을 다시금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가 온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보의 기도일 것이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귀한 일꾼으로 준비시키실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경제 현황은?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

국내외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북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공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예방과 전염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1차적으로 지난 1월 22일 북중 국경을 폐쇄하였으며 고려항공 운항도 중단시켰다. 4월에 열린 14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내각의 공동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5월 19일자 노동신문은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자기 지역의 방역사업은 자신들이 책임진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 들고 있다....방역물자 조성과 비상방역 정보체계를 원만히 구축하기 위한 사업 등....빈틈 없는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고 보도하면서

국가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북중 국경이 폐쇄된 후에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장마당도 일시적으로 폐쇄되었다. 현재 북중 국경봉쇄는 신의주를 시작으로 일부 완화되어 교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거의 북중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다. 북중간의 무역, 투자, 관광, 밀무역 등 경제활동도 큰 폭으로 축소되어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국경봉쇄 초기에는 시장에서 물가가 급등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 상품, 쌀, 옥수수 등의 사재기도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무역 부문의 침체

최근 10년간 북한경제의 생명줄은 북중 무역이었다. 2019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무려 95.2%를 기록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2018년과 2019년 북한의 대중 수출이 각각 86%, 21% 감소하게 되었고, 북한은 심각한 경제침체와 외환부족을 겪게 되었다. 특

히, 2017년에 발의된 UN 안보리결의안 2371호와 2375호는 각각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인 무연탄, 철광석, 수산물과 북한산 식물과 의류 완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북한은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중국에도 영향을 주었다. 2020년 중국은 1분기에 약 -6.8%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고 공표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중 무역은 일부 호혜성을 지닌 측면도 있었다. 북중 경협이 갑작스런 감소는 북한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도 동시에 경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현실을 예시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회생하지 않는다면 북한경제도 성장세로 전환되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도 연계되어 있다. 북중 무역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북한의 기업소와 주민들의 경제활동은 난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중국 외의 새로운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 가능성은 전무하다. 설사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더라도 경제제재 문제도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이 자체 내부자원만 가지고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불가능하다. 단기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는 경제 회복보다는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경제의 회복에는 자국의 자구 노력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정상화와 경제제재의 해제조치가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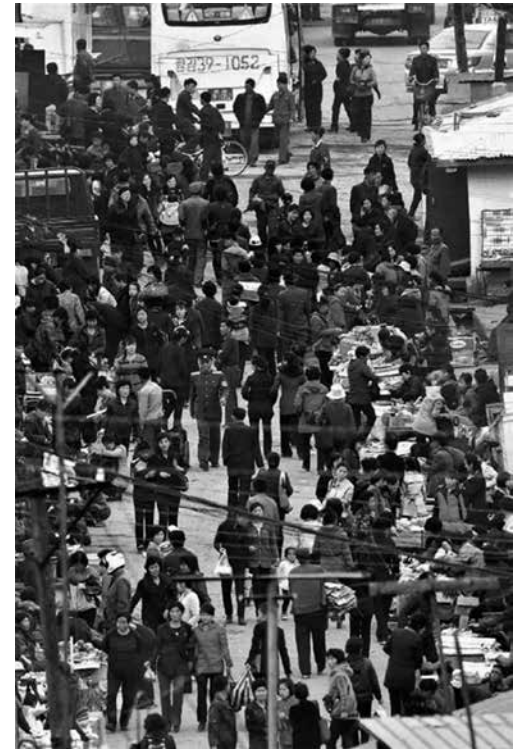
북중 무역의 침체는 북한 공식경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게 된다. 북한이 강조해 온 자력갱생, 정면돌파, 국산화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목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자본과 외화부족으로 달성이 어려워졌다. 즉, 이념에 집착한 북한의 공식경제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기업소 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은 자본부족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 자본과 외화부족으로 인해 북한경제의 정상화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국가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金正은의 관심이 높은 삼지연시 꾸리기, 순천인(鱗)비료공장,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같은 특수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왔다. 문제는 우선사업에 자원배분이 집중되면서 다수의 국가기업소들은 운영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국가 기업소의 경우 북중 무역의 중단 및 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고용, 배급, 원자재 공급 감소, 자본감소 등 거의 모든 부문의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침체에 접어든 시점에서 북한의 기업소가 자본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국가 기업소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를 외화로 구입하기 때문에 외화사용 제한으로 인해 공장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다. 나선시의 담배공장, 신의주시의 봄향기 화장품 생산공장 등이 좋은 사례이다. 심지어 북한의 외화조달의 침병 역할을 하는 조중(朝中) 합작기업소들에게 국가가 외환 할당량을 늘리라는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북한 내에서는 백화점을 포함한 상점들의 외화 거래를 늘리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시장 정상화가 주민경제 회복의 길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은 계획경제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다양한 상품 거래를 넘어 사금융과 부동산 거래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거의 중단되면서 북한 시장에 필요한 상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장의 기능이 크게 감소되어 일부 시장은 단기적으로 폐쇄되기도 했다. 시장에서 생필품의 공급 감소로 물가가 급등했고 주민들의 구매력도 급속히 감소하였다. 밀수와 같은 비공식 행위도 감소했기 때문에 북한의 시장은 장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북한에서는 시장이 주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북한에 생필품을 공급해왔던 중국 상품의 공급이 제한되면서 북한의 시장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상품공급 감소와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상행위도 제한을 받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투기행위도 발생했다. 따라서 시장과 연계하여 생활을 영위하던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경제사정은 악화되었다. 반면 국가는 외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장에서는 내화로만 거래하도록 지시했고, 심지어 상품가격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급증가 없이 통제만으로 물가를 억제할 수는 없다. 상품의 수출입 중단은 심각한 실업문제도 가져온다. 다수의 여성들과 노인들은 시장에서 일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다. 시장의 위축은 시장 인력의



〈북중 접경 헤이룽성 장마당 풍경 (동아일보)〉

감소와 구매력 감소를 가져와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난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불법 경제행위 증가 가능성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심각한 경제난과 외환부족에 직면한 북한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아마도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을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일 것이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2016년 2월 방글라데시은행 피습 사건 이후,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테러는



〈2018년 미 법무부에 의해 공개수배된 라자루스(Lazarus) 소속 북한 국적 해커 박진혁〉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SWIFT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과 암호 화폐 거래소에 대해 여러 차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였다. 38North에 의하면 북한은 ATM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인프라에 접근하여 5시간 내에 20여 개국에 걸쳐 개인에게 1만 건의 현금 분배를 시행하기도 했다. 2020년 미국 재무부의 테러와 불법 금융에 대한 국가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의 세 개 해킹 그룹이 암호 화폐 탈취를 통해 2017년과 2018년 5억 7천 1백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획득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미국 미 법무부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비밀 지점과 250여개의 유령회사를 전 세계에 설립하여 25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수차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와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대응조치를 시행하였다.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강화한 가장 큰 이유는 범죄 행위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즉,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수익성 높은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의의 회사, 가짜 서류, 외국인 등을 내세워 은행 시스템에 접근한 후 탈취한 자금을 송금, 세탁한다. 최근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비율은 다른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보다 높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이후 마땅한 외환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으로서는 더욱 해외 금융해킹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더욱 강력한 미국의 금융제재가 부과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경제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자본과 생산력이 부족한 북한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 증가하게 되고, 실질적 피해가 누적되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으로서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도 동시에 극복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충격은 기존의 경제제재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국의 암묵적인 대북 지원이 예상되지만 2300만 이상이 살고 있는 북한경제를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북한경제가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겠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구력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큰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해소된다면 북중 무역이 급등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북한의 교역증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시장도 곧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경제 또는 공식경제가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북한에 미친 경제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를 다시 추스르는 build-up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논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 (VOA 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와 북한경제

오 일 환 (한양대 교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북한의 식량난 문제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농업은 중국으로부터의 비료, 농자재의 수입이 중단되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론된다. 아직 정확히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가 6월 발표한 2020년 6월 쌀 전망보고서는 2020년 북한의 쌀 생산량은 136만톤으로 고난의 행군 때인 1994년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4월 2020년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장기간의 가뭄과 홍수 등으로 북한 의 농작물 수확량과 식량 공급량이 줄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국제 보건위기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7월에는 북한을 식량 부족국가로 재지정 하였다.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경제 전반의 활성화와 경제부문 간의 균형 성장을 달성해 사회주의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건설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2020년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완성되는 연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시대에 맞지 않는 자력갱생이나 정면돌파전을 경제정책의 원칙으로 고수한다면 북한경제는 계속 방향을 잃고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이라도 경제 원리에 맞는 전향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빛나간 북한경제의 궤도를 수정하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이 역경을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보다 과감한 시장개혁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더욱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북한의 방역은, 보건 의료 수준이 매우 열악한 탓에, 주로 무역 봉쇄, 이동제한, 격리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초보 수준의 방역수단으로 아직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숨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코로나19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경각심을 약화시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법이다. 질병에 대한 거짓 정보는 자국민에게나 국제사회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화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27일 ~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제난 해결의 돌파구를 상실한 김정은은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면돌파전’은

내부적으로 자력갱생 투쟁과 사상무장 강화, 대외적으로 핵 억제력 강화와 대미 위협술 구사로 요약된다. 여기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의지는 ‘자력갱생 투쟁’으로 연결되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력동원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직후인 지난 3월 17일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에서 “올해 계획된 많은 건설사업들 뒤로 미루겠다”고 언급했다. 평소 같았으면 당 창건 75돌 기념일을 앞두고 ‘200일 전투’를 주문했어야 할 시점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19가 북한경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당국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우려해 입국 제한이라는 빗장을 걸어 잠갔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열악한 보건위생 환경 및 의료 수준을 감안할 때, 심각한 인명 피해는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1월 9일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폐렴이 발생했다는 중

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고 난 다음 1월 28일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국경을 굳게 닫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고 열흘 후인 3월 21일, 북한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세계보건기구와 의료 및 방역 전문가들은 방역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건잡지 못하는 악성 전염병이 조선에만은 들어오지 못한 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초기부터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대책을 강구해 나라의 방역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단과 체계, 법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북한이 1월 말에 국경 폐쇄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북·중 국경 봉쇄 조치 이전에 이미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 내부에 침투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12월 초에 이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고, 이후 두 달 동안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영국 BBC에 따르면, 국제 의학 저널 The Lancet에서는 우한의 진인탄병원(Jinyintan Hospital)의 부국장 후양 차올린(Huang Chaolin)이 작성한 논문에 병원은 2019년 12월 1일 첫 번째 사례를 치료했으며, 이후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 폐



〈마스크를 쓴 평양 주민들 (VOA)〉

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미 지난해 11월 중에 발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과 가장 인접한 북한만 코로나19가 피해갔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 7월 2일에 개최된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14차 정치국 확대회의는 코로나19 국가 비상방역 문제를 주로 다뤘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선부른 방역 조치의 완화는 상상할 수도, 만회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하는 한편, “자만하거나 해이됨이 없이 최대로 각성 경계하며 방역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할 데 대하여 지적”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지난 6월 30일자 기사에서 “아직 우리나라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면서도 7월 7일자 기사에서는 “(코

로나중앙비상방역) 지휘부에서는 국경과 영공, 영해를 완전히 봉쇄하고 국경과 해안 연선에 대한 봉쇄와 집중 감시를 더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후 7월 13일자 『로동신문』은 “인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 대하는 우리 당의 요구성에는 100% 완전무결이란 없다”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강조했다. 이틀 후인 7월 15일자에서도 “방역을 철통같이 해야 한다”며 3개의 지면을 할애해 코로나19 관련 특집 기사를 실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으면서도 왜 이토록 강력한 봉쇄와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언제 불어닥칠지 모를 코로나19 팬데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 아니면 이미 확산일로에 있는 팬데믹 상황을 염두에 둔 호소인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으면서도 날이 갈수록 방역을 더욱 강조하는 것은 확진자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의 구심이 들게 한다.

북한 사회가 ‘급성폐렴’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내부의 탈북민 가족들과의 전화 통화나 소식통을 통하여 종종 알려지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 말하는 ‘급성폐렴’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코로나19의 우회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7월 10일자 『조선일보』는 ‘北 코로나 사망 500명, 격리 대상 39만명’ 제하의 기사에서 외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해도 ‘급성폐렴 사망’으로 발표하고, 시신은 모

두 화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한 북한 소식통이 7월 9일 “지난달(6월) 말 현재 북한의 코로나 사망자가 500명을 돌파했다”며, “격리 대상자가 누적 39만 명에 달해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알린 사실도 보도했다. 또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월 12일 방송에서 평안남도 강서지방 사정에 밝은 한 북한주민의 말을 인용, “북한군 3군단 소속의 여러 군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세와 아주 유사했지만, 진단키트가 없어 코로나19 확진을 하지 못했다”며, “사망 원인을 급성폐렴으로 처리하고, 장례를 조용히 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하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경제는 북핵문제로 말미암은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북·중 국경 봉쇄에 따른 현격한 무역 축소와 생산활동의 위축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스는 6월 1일 올해 북한경제 성장률을 원래 전망치 3.7%에서 무려 9.7%나 더 하향 조정하여 -6%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7년에 기록한 -6.5% 이후 23년 만에 기록한 최악의 수치에 해당한다. 피치솔루션스는 그 핵심 요인으로 코로나19가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친 충격을 꼽았다.

특히 북한은 대외무역의 95%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해 왔는데, 금년 들어 코로나19 여

2020년 북한의 대(對) 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만 달러, %)				
구 분	1~2월	3월	4월	5월
수 출(a)	1,067	62	221	475
(전년동월비)	△72.0	△96.3	△90.3	△72.2
수 입(b)	19,739	1,803	2,180	5,857
(전년동월비)	△23.2	△90.9	△90.0	△77.3
무역 총액	20,807	1,865	2,400	6,332
(전년동월비)	△29.5	△91.3	△90.1	△77.0
무역 수지(a-b)	△18,672	△1,742	△1,959	△5,382

자료: 중국해관총서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센터 북한통계(3~6월 합성)

파에 따른 국경 폐쇄 및 검역 강화로 말미암아 대중 무역이 현격히 감소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2016년도의 경우, 북·중 무역 규모는 26억 달러에 달했으나, 북핵문제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말미암아 지난해에는 2억 달러 규모로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차단하였고, 중국 역시 북한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역유입될 것을 우려해 북·중 국경 개방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양국 간의 무역 정상화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사 북·중 간 무역이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으로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외화벌이의 어려움으로 외환보유고마저 급격히 줄어든 상태여서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6.3%, 수입은 90.9%나 각각 줄어들었으며,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0.3%, 90.0%,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72.2%, 77.3% 각각 감

소했다. WHO가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의 경보 최고 단계인 ‘팬데믹(세계적 대 유행)’을 선포한 3월에 대중 수출입의 전년 동월 대비 비율이 대폭 줄어들었으나, 4월 이후에는 대중 수출입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난 악화로 국경봉쇄 수준을 다소 완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또 통일연구원이 7월 10일에 발간한 「북한 시장의 물가 및 환율 동향」에 따르면, 2~4월 기준으로 쌀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5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물가 상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생산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탓도 클 것이다.

북·중 간의 무역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우려하여 시장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주민의 ‘젓줄’이 돼온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으로 향하는 화물차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다 (VOA 자료사진)〉

장마당의 위축을 야기하게 마련이다. 북·중 국경봉쇄의 여파로 장마당에서 물건 품귀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엄습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경제 사정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사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도발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어도 제재 예외 품목의 교역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면서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는 북한을 도와왔다. 지난해만 해도 최소 20만여 명에 달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방북을 허용했고, 국경지대의 밀무역을 눈감아주었으며, 북한 노동력을 편법으로 고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국 역시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특혜를 주는 방식의 교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자체는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중국인 대상의 관광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6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금년 들어 중국인 관광객 수백만 명을 유치해 외화벌이로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장춘몽이 되고 만 것이다. 이처럼 관광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은 곧 외화난의 가중을 의미한다.

이처럼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자, 최근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

문 1주년에 맞춰 80만t에 이르는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쌀이 60만t, 옥수수가 20만t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식량 지원이 일시적으로는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모면케 할 줄 모르겠으나, 경제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서는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김정은은 체제 단속을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거나,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면서 사상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또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만약, 제2차 팬데믹이 가을에 발생하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세계 경제는 지난 세기에 겪은 대공황기 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면, 북한의 경제 사정은 악화일로로 먼치 못할 것이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 체제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핵·미사일만으로 장기간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동신문은 지난 5월 17일 ‘정면돌파전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신념’ 제하의 논설에서 “정면돌파전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신념은 투철한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자기 힘을 굳게 믿고 펼쳐나설 때 이 세상 못 넘을 령이 없고 극복 못 할 난관이란 없다”며 자력갱생의 의지를 촉구하는 사상강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사태라는 겹악재 속에서 인민을 다잡고 사회 전반에 기강을 세우

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애써 코로나 감염자가 전혀 없다고 선전하고, 대내적으로는 인민에게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매진할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지만, 인민이 도탄에 빠지고,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체제는 언젠가는 허물어지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김정은 정권이 존속할 수 있는 길은 경제 회생에 달려 있으며, 이는 곧 대북제재의 근원이 되고 있는 비핵화와 경제 개혁·개방의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3차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과 일부 핵시설 해체 대 제재 완화라는 ‘스몰딜(small deal)’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CNI)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국장은 16일(현지시간) 미 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게재한 글에서 미국이 고려 중인 새로운 제안은 ‘맞춤형 제재 완화 패키지’로 “북한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핵심 핵 생산시설을 해체하고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7월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북한 비핵화라는 세계의 목표를 향한 중대한 조치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정상회담을 만나게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측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중심

이 되어 ‘스몰딜+α’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폼페이오는 “우리가 그런 (미·북 3차 정상회담)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이는 3차 정상회담이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지도부는 3차 정상회담의 기회를 살려 진정 인민을 살리는 선택, 즉 비핵화에 동참하며 경제를 회생시키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스몰딜’이 자칫 한미동맹의 약화 초래 등 한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방향으로 접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줄

수 있는 카드가 북한의 경제 회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인민의 생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과 함께 체제전환에 적극 나설 경우, 남한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풀고 돕는 손길을 내밀 것이다. 그러할 때라야 북한경제는 회생될 것이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역내 안보질서는 안정을 찾게 될 것이며, 그만큼 평화통일의 길도 크게 단축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북한경제

정은찬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I. 코로나19, 북한은 안전할까?

2020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간 생활에서의 일상이 마비되고 세계 공급망 붕괴, 실물경제의 위축, 기업의 실적 하락 등 다중쇼크로 경기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는 과거의 메르스나 사스 수준을 넘어선 팬데믹 현상으로 경제위기를 장기화시킬 것이라는 공포까지 주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3월 미국 인구의 50%, 독일 인구의 70%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유가 폭락으로 미국과 중동 등의 산유국 위기의 확대, 중국 원자재 시장의 공급망 붕괴 등으로 전 세계 GDP 성장률이 2%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을 90%로,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을 제로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K방역’이 세계표준 모범사례로 거듭났고, 신종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K경제’의 세계 표준화를 목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우리의 반쪽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안전할까? 언론보도를 통해 북한은 올해 1월부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신속히 가동시켜 국경을 봉쇄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지역별 감염대상자 격리 및 격리해제와 관련한 통계가 실렸다. 이는 북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하게 한다.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가 53배(2018년 GNI기준)에 달하는 북한,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북한, 과연 국가비상방역체계의 효율적 작동을 담보할 경제력은 탄탄할까?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에는 영향이 없을까? 본고는 이러한 궁금증을 푸는데 목적을 두려고 한다.

〈표 1〉 북한의 ‘노동신문’에 실린 코로나19 관련 내용(2020.3월분)

구 분	게재된 내용
2020.3.1.	약 7,000명의 의학적 감시대상자 격리
2020.3.6.	외국인 221명 격리해제
2020.3.8.	강원도 1,020명, 자강도 2,630명 격리해제
2020.3.13.	평안북도 990명, 평안남도 720명, 외국인 추가 70명 격리해제
2020.3.20.	평안남도 1,500명, 평안북도 1,090명 추가, 강원도 1,430명 격리해제

II.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북한은 자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강원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등지에서 감시대상자를 격리 및 격리해제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표 1〉의 노동신문에 실린 내용을 보면 북한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수 발생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신종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신속히 진단하고 격리 조치하여 전염을 차단하고, 감염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방역체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비교적 신속했다. 신종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1월 22일 북한은 국제선과 여객수송이 이루어지던 국경 경로를 폐쇄하는 조치를 일차적으로 취하였으며, 이어 1월 30일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잠정 중단, 대외교류 창구인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등의 비상방역체계를 가동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북한방문이 차단되었고 북한과 중국과의 교역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은 4.12국제마라톤 대회를 취소하고 대내적으로 마스크 생산

〈그림 1〉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북한 평양의 모습



마스크 착용: 평양역 앞(중앙일보, 2020.4.28.)



사회적 거리두기: 평양역 앞(중앙일보, 2020.4.13.)

을 위한 공장기업소의 자력갱생을 독려하는 한편, 보건의료체계와 방역체계를 보강하여 원거리 원격진료 및 환자치료, 방역을 위한 소독 강화, 주민 대상 방역지식 전달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에서 학교 학생들의 개학 일정도 연기되어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1, 2학년은 6월 초에, 대학교 고급중학교 3학년의 개학은 4월 20일로 미뤘다. 북한은 현재까지 공공장소에서의 모임 및 회의의 금지, 1m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하루 두 차례 이상의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의무착용 등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조치는 과거에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4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메르스, 2014년 에볼라 등의 감염병 발생시 북한은 조기 국경 폐쇄 등 방역 위기관리 시스템을 신속히 가동시켰다. 그러나 의료 및 방역 장비 부족과 의약품 공급 여건 열악, 공장기업소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생산 저하로 환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사

망자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를 북한 주민들이 감수해야 했다.

2020년 북한의 비상방역체계는 과거보다 어느 정도 향상되었을까? 이를 담보할 북한의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

Ⅲ.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후 북한경제 현황

감염병에 대응한 북한의 국경 폐쇄 및 무역 중단 조치는 수출 중단에 의한 외화 부족, 수입 중단에 의한 소비재 공급 부족을 초래하는 변인이 되어왔다. 과거 사스(2004) 대응시 8개월간 대외무역을 중단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을 때에도, 그 이후 메르스, 에볼라 사태 때에도 그러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북한의 조치는 화물선까지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과거의 조치보다 더욱 강력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는 대내외 경제발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후 북한 경제는 (1) 국경 폐쇄에 의한 북·중 교역규모의 감소, (2) 관광 중단에 의한 외화 부족, (3) 원자재 수입

〈표 3〉 2020년 상반기(1~6월) 북·중교역 추이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억 달러	0.27	3.83	4.11	-3.56
전년 대비(비중 %) 전년 대비(억 달러)	- 74.8% (1.09)	-66.5% (11.45)	-667.2% (12.53)	-66.6% (- 10.36)

출처: 통일부

중단으로 인한 국산품 생산 위축, (4) 시장에서 공급물자 부족 등의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2020년 상반기 대폭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이미 감소폭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조치로 국경 봉쇄가 본격화되어 대외무역에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북·중교역이 중단된 것에서 기인된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북제재로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전년(2017년 55.5억 달러) 대비 50%로 축소되어 28.4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4.1%를 기록하였다. 2019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1억 달러, 수입은 25.9억 달러로 전년(2018) 대비 각각 16.8%, 7.2% 증가하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해외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 창구도 막혀 북한 경제는 외화 수급에 영향을 받고 있다. 북한의 조선관광총국은 2018년 외국인 관광객은 20만 명, 2019년 3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은 연 5,0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북한은 삼지연시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 온천 등의 관광단지에 해외관광객을 본격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다른 방면의 외화획득 창구인 해외근로자 파견도 대북제재로 2019년 12월에 파견근로자의 북한으로의 복귀가 본격화되어 북한경제의 외화보유규모 증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한 관광객 유치를 통한 북한의 외화획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북한 내수경제의 위기는 외화 부족에 의한 국영기업의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후 북한 경제에서 국산품을 생산해야 하는 국영기업의 운영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의 계획경제 영역에서 가동되는 공장기업소는 30% 정도에 달한다. 나머지 70% 이상은 김정은 집권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2012.6.30.),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2014.5.30.), ‘기업소법 개정’(2015) 등의 경제정책 시행에 힘입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공장기업소는 원자재와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 계획경제 방식으로 조달받아 중앙지표를 생

〈표 2〉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외교역-대중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교역규모	68.1	76.1	62.5	65.5	55.5	28.4	32.4
북중 교역	59.3	68.6	57.1	60.5	52.5	27.2	30.9
비중(%)	87.0	90.1	91.3	92.4	94.6	95.8	95.4

자료: 통계청, 201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산해야 하는 30%의 중앙기업들과는 다르게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자체로 자력갱생으로 수익을 창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화부족 및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감소, 밀무역 중단 상황이 지속되어 국산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공장기업소의 생산성을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시장 유통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400여개 지역별 종합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80% 이상은 중국산이다. 국경 봉쇄로 인한 북한 내 수시장으로의 중국상품 유입 중단은 시장에서의 소비품 공급을 위축시켜 시장가격 상승의 전제가 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은 올해 2월 초와 4월말 두 차례 6,500원(북한원)을 상회하는 등 시장물가의 변동폭이 작년 대비(평균 4,000~4,500원) 확대되었다. 시장에서의 휘발유 가격도 쌀가격과 동시에 2월초, 4월말에 급등하여 1/2분기 상승폭이 4.6%, 2/4분기 12.2% 상승폭을 기록하였다가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5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가격 변동은 대북제재로 북한 시장 내부에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조치로 국경 통제가 가중되어 북한 상인들의 불안한 경제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시장가격 급등 상황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는 시장에서의 가격 파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체 내부자원만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북한 경제에서 시장에서의

공급물자 부족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유인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Ⅳ.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북한의 과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북한의 신속한 국경 봉쇄 대응은 북한 스스로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주장에 명분을 주기도 하지만, 무역 감소 등의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전제로도 작용한다.

2020년은金正은 집권 9년으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2011-2020)’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완수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따라서 북한은 2020년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첫째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내세운 위의 두 가지 경제전략계획을 총화해야 하며, 둘째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국가비상방역체계를 효율적으로 작동시켜 감염병 확산에 의한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 경제문제의 해결에 귀결된다. 특히 비상방역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어야 하며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는 평양종합병원이 건설되는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진단 및 치료가 비교적 원만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보건의료시설의 노후화, 의료기기 및 의약

품 공급 부족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환자치료가 시행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북한 경제의 내부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는 그 작동에 있어 한계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겪으며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 시기이다. 북한체제도 북한 주민을 최우선에 놓고 코로나19로 인해 봉착한 자금의 경제문제를 풀어나갈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남북한 교류협력이던, 국제사회의 지원이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여 북한 주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지원 제안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우호국, 인도주의적 비영리 단체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북한은 의료시스템의 보강과 주민들의 먹는 문제의 해결인 식량공급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17)

●
마리아

돌이켜보면 참 나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다. 첫 탈북을 시도하여 중국에 정착한 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무렵 좋은 일자리를 주셨으며, 그곳에서 잘 정착하여 고향 땅에 있는 보고싶은 가족에게 달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생활비를 보냈다. 그러나 얼마 후 공안에게 발각되어 복송된 후부터는 이 감옥 저 감옥을 옮겨다니며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였으나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버티었더니 각종 반장, 주방장, 조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감방에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전도하시는 바울과 같은 루디아 선생님을 뵈면서 신앙의 진수를 배울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생각보다 일찍 출소한 이후로는 생계를 위해 뼈뼋하게 살았지만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자녀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 수 있던 것이 돌이켜보면 참 축복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에서의 삶은 막막하고 고되었다. 먹고 사는 일이 막연하여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화전민 생활을 하면서 감자, 옥수수를 오십 키로 정도 가득 싣고 산비탈을 내려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무거운 것을 등에 지고 갔을까 싶기도 하다. 그래서 북에는 살찐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싶었다. 부지런한 우리 남편은 이곳 저곳에서

다양한 기술을 배워와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어느 날부터는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하던 산사냥 실력을 발휘하여 멧돼지와 노루를 잡아다가 팔기 시작했다. 산사냥은 불법이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에 산림보호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일을 했다. 잡은 동물은 동네에서 조용히 팔거나 아니면 나와 남편이 함께 시내로 나가서 장마당에서 팔았다.

한 1년쯤 지나니 일상에도 어느정도 적응이 되고 조금이나마 주변 상황들이 파악이 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는 자유가 억압된 그 땅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교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갈급했다.

어느 날은 집에 있는데 뜬금없이 보위부 직원이 핸드폰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표면적으로는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중국말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으나, 나는 본능적으로 나의 반응을 보려는 술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핸드폰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 가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관찰하려는 수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 그런 순간 순간에 내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참 감사하다.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

니 어떤 북한 여성이 중국 말로 “중국에 가고 싶다. 이곳 생활이 어려우니 중국 돈 얼마를 보내달라.” 라고 통화한 내용이었다. 나는 얼굴도 모르는 그 북한 여성에게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고,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워 돈 좀 보내달라”고만 통역해주었다.

보통 북한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때 불법적으로 브로커들을 통해서 받는데 그 수수료가 약 30%정도 된다. 10만원을 보내면 7만원만 전달받는 셈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보위지도원에게 걸리면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에서 빼앗기게 되고 붙잡힌 사람은 취조를 받거나 감방생활을 하게 된다. 얼마전 핸드폰을 들고 나를 찾아왔던 보위지도원은 그런 식으로 생활비를 전달받는 북한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작업에 나를 동참시키고자 하였다. 오고 가는 돈의 액수가 많을 때 자신에게 귀띔해달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을 다룬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없는 돈을 갈취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 인간다움이 사라진 이 부패한 사회 속에 더 이상 남아있고 싶지 않았다.

자유로운 땅 한국에 가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으나 어느 날부터가 남편과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북한 땅에 있는 것이 지긋지긋하지 않느냐. 함께 한국으로 가자.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남편과 아이들과 떨어져서 살아보니 너무 힘들더라. 우리 다 함께 한국으로 가자. 그러나 남편은 그때마다 거절했다. 물론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붙잡혀 즉시 처형을 당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다. 처자식의安危를 생



〈북한 최신형 스마트폰 평양 2423 (한겨레신문)〉

각한 남편은 끝내 탈북하기를 거절했고, 나는 그때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져만 갔다. 때로는 남편이 비겁하다고까지 생각했다. 나는 한번 가족과 떨어져 살아보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남편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자 괜한 거절감과 상실감이 들었다.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하기를 원할 정도로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웠다. 남편이 가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출소한지 1년이 넘는 시점부터는 감방 동기들이 사는 옆동네를 자주 오가며 브로커들과의 인맥을 쌓기 시작했다. 가끔씩 브로커들을 도와 사람들을 데리고 보위지도원들 몰래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닿도록 돕는 일들을 했다. 중국과 같은 외부 세상과 연락을 하려면 깊은 산 속에 올라가야 했는데 그러려면 의심받지 않도록 화전민 행세를 하며 허름한 옷과 운동화, 호미 또는 낫과 같은 도구를 준비해야 했다. 꼭두새벽부터 나가서 산을 타면 중국이 내다보이는 도착지점에 점심 즈음 도착하고, 연락을 한번 하고 내려오면 하루가 꼬박 걸렸다.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도 연락을 취했으며 브로커들을 도와 북한 사

람들과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겨 돈을 벌었다. 운이 안 좋아서 순찰대원에게 걸리면 뇌물을 주어야했다. 반을 주고 반은 내가 챙기는 식이었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번 돈으로 살림도 보태고 탈북 자금도 모았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산사냥을 마치고 귀가하는데 웬 낯선 사람과 함께 집에 들어왔다. 남편이 그날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은 산속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근처 마을에서 잠시동안 머물러야 하는 일이 생겨 우리 집에 신세를 지러 온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브로커일도 같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시 내가 자주 다니는 옆동네에도 잘 아는 브로커가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마침 알고 있다며 집주소를 주었다. 참 지금 생각해보아도 우연한 계기에 적절하게 찾아온 기회였다.

얼마 후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명식이라는 브로커를 만났다. 명식이라는 사람은 주로 밀수를 하는 사람이었고 강을 안전하게 건너는 루트와 해당 브로커들을 잘 알았다. 그 친구에게는 한국에 간다는 말은 안하고 중국에 벌여놓은 돈이 있으니 탈북을 하는 비용과 방법을 상세히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몇 년 전에 탈북했을 때와는 또 상황이 많이 달랐다. 비용은 갈수록 올랐고 경비도 삼엄했다. 이제는 국경 경비대원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몰래 넘어가기가 불가능했다. 당국에서는 국경 경비대 군인들에게 탈북한 사람들을 적발하면 포상휴가를 주고 대학까지 보내준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통제가 심했다.

그 즈음부터 한국을 가려고 먹은 마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강을 건너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나 혼자 힘으로 그 돈을 모

으는 데는 한계가 있어 중국 교회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후원 부탁을 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수개월간 명식이라는 친구와 연락하면서 몇몇 브로커들과 안면을 트며 그 인맥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동네로 넘어가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다. 시내에서 우연히 명식이를 만났는데 명식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 길이 열렸다. 가야 될 것 같다.”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새로웠다. 북한 안에서만 꼼짝없이 살았으면 내가 힘든 것이 힘든 줄도 모르고 그저 살았을 텐데 한번 외국 생활을 맛보고 오니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괜히 불쌍하기만 했었다. 답답함과 불합리함에 넋덜머리가 났고, 자유에 대한 갈증이 심하여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예상치 못한 어느 날의 제안은 나를 구해주는 한 가닥의 동아줄 같았다. 내가 선택만 하면 되었다.

아무런 준비도 못했고 작별 인사도 못했지만 이미 내 몸은 명식이를 따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그 지역에서 조금 걸어 나가 명식이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가면서도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대로 반나절을 이동하여 밤이 깊어서야 명식이 장모님 댁에 도착하였다.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다시 반나절 정도를 이동하여 다른 여성 브로커 집으로 가서 하루종일 다음 순서를 기다렸다. 어두운 밤이 되자 국경 경비대원 한 명이 우리를 데리러 왔다.

아직도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경비대원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갔다. 가을이었지만 꽤

쌀쌀한 날씨였다. 야맹증이 심했던 나는 캄캄한 밤중에 그 군인 친구 바로 뒤에 바싹 붙어 따라갔고 명식이는 한 5미터 정도 떨어져서 걸었다. 가는 길목에 옥수수밭이 있었는데 그 군인 친구가 별안간 멈추어 서더니 기다리라고 했

다. 국경 연선에서 이쪽 상황은 해결되었으나 저쪽 상황을 살피고 올 모양이었다. 명식이기도 나도 옥수수밭 한가운데 쭉그리고 앉아서 군인 청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 적막하고도 길게 느껴졌다.

그 때, 갑자기 앞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낮은 목소리로 “서라.”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 눈 앞이 하얘지고 머리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졌다. 명식이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쏜살같이 도망갔으나 나는 온몸이 굳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찰나의 순간에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뛰어도 어느 쪽으로 뛰어야 하는가. 여기까지 와서 왔던 길을 되짚어간다 한들 중간에 걸릴 것이 뻔하였다. 그 령다고 경비가 더욱 삼엄한 국경 쪽으로 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일어나서 내 앞에 섰던 사람을 자세히 보니 다행히도 군인이 아니었다. 누구인지 묻자 이 옥수수 농장의 벼 분조장이라고 했다. 분조장이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지위가 꽤 높은 축에 속한 민간인이었다.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 탈북이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터인지라 나 같은 사람을 잡는 것은 그 사람에겐 별일도 아니



〈한밤 중에 몰래 국경을 넘는 탈북인을 묘사한 장면. (영화 ‘크로싱’ 중)〉

어 보였다. 좀 전부터 우리를 발견했지만 일부러 저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가 군인이 사라지자 다가온 눈치였다. 분조장은 나보고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했다. 보안서로 끌고 가는 것이 뻔하였다. 그러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나는 별다른 뽀족한 방도가 생각나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을 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있으면 전방을 보러갔던 군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그가 나를 빼내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아무개 집에 일 보러 가는 길이었다”고 말했지만 그런 변명이 통할 리가 없었다. 분조장은 얼른 따라오지 않으면 군인들을 부르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렇게 시간을 끄는 와중에 전방을 살피러 간 군인 청년이 돌아왔다. 청년은 우리 둘을 보자마자 시치미를 떼며 “이 밤에 이 녀인네는 왜 여기에 있는가”하고 물으며 “우리 강내 온 사람이니까 내가 데려간다”고 내 팔을 채갔다. 그러나 분조장도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다. “아 뭐야, 내 손님이야”라며 군인 청년에게 엄포를 놓았고 경험도 나이도 많지 않아보였던 그 군인 경비대원 청년은 그 기세에 밀려 그대로 돌아갔다.

절망적이었다. 분조장은 “보안서 사무실에 가

자"라며 나를 이끌었다. 설마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머리가 새하얗게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텔레텔레 걷는 와중에 어떤 아줌마가 다가왔다. 아닌게 아니라 명식이와 군인 청년 사이를 놓아준 아줌마였다. 군인 청년이 자리를 뜨면서 그 아줌마에게 연락했고, 그 여성 브로커가 나를 찾으러 온 것이다. 다행히도 그 아줌마는 나를 잡아가던 분조장과 각별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이 여자가 나를 보면서 "아니,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어떻게 여기 있나"라면서 능청을 떨었고, 분조장은 그 말을 듣고는 "아무개 엄마, 지금 남편도 단련대 가있는데 이런 장난을 자주 하면 되겠다"면서 못마땅한 눈치로 나를 풀어주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나와 분조장은 그 아줌마를 따라가게 되었다.

아주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둘 모르게 열린 집 뒤쪽으로 숨어들어갔다. 그 곳에 명식이가 있었다. 아까 분조장에게 걸렸을 때 냅다 뛰어 이 곳으로 먼저 들어왔던 것이었다. 명식이를 따라 그 집 뒷문으로 걸어와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머니 동생 집으로 갔다. 그



〈중국이 압록강 일대 북한 접경 전역에 설치한 견고한 이중 철조망 (RFA)〉

곳은 나처럼 탈북을 하러 오는 사람이 거쳐가는 곳이었다. 몰래 빠져나왔으니 일단 위기는 모면한 셈이었다.

명식이는 그 집 부엌에 차려져 있는 삶은 계란을 먹더니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 와서 자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내뺐다. 나는 그런 명식이를 보며 차라리 너가 입은 바지와 내가 입은 치마를 바꿔입자며, 무슨 남자가 여자보다 겁이 많냐고 호통을 쳤다. 웬지 모르게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욱 오기가 생겨 단호해지고 비장해졌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내가 죽어도 이 길은 포기 못하겠다. 이런 각오가 생겼다.

명식이와 실랑이를 하다가 둘 다 깜빡 잠이 들었다. 단잠을 자고 있던 깊은 새벽 어느 때에 아까 그 군인 청년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빨리 건너자" 그 한 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길을 또 나섰다. 아무런 대꾸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하여 따라 나섰다.

밤이 깊어지자 점점 추워졌다. 거의 초겨울 날씨였다. 새벽 이슬이 맺혀 걸음마다 낮은 소리로 자박자박 소리가 났다. 아무도 없는데도 긴장이 심하여 정말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다. 군인은 우리를 철조망으로 인도한 뒤 망가진 철조망 사이를 들어올려 우리를 내보내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북한 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나는 마침내 출애굽의 길을 선택하였다.(계속)

+ 북한 "탈북민 월북사태로 코로나 위험 커져...개성 방역 총력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7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해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악성 바이러스(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소독사업을 비롯해 제정된 방역 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월북한 탈북민의 고향으로 알려진 개성시 비상방역지휘부가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에 따라 어떤 정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고 공개한 이후 내각과 개성시를 중심으로 방역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북한은 7월 26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도주자(탈북민)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월북)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25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월 27일 '당중앙의 지시와 포치(조치)를 정확히 집행하여 조성된 방역 위기를 타개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며칠 전 전문방역기관에서 불법 귀향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한 데 의하면

황에도 신속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만단의 방역학적 태세를 유지하며 최대의 긴장상태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월북 탈북민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일각에서는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책임을 남한에 돌리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고: 연합뉴스 7월 27일)

+ 김여정,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일축…"우리에겐 무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7월 10일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중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3가지 이유로 올해 중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이유를 꼽았다. 연내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무익하다"는 것, 회담으로 "그나마 유지되어오던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 가능성, 그리고 "쓰레기 같은 불탄(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 등이 그것이다. 다만 김 제1부부장은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상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방의 많은 변화라고 할 때 제재 해제를 염두한 것이 아님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나

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노이 회담탁에 올랐던 일부 제재 해제와 우리 핵개발의 중추신경인 영변지구와 같은 대규모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다시 흥정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북한의 군사적 행위와 관련, "전적으로 자기들이 처신하기에 달려 있다",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미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미 정상 간 친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얻으려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김 제1부부장이 제시한 조건은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 틀을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에서 '적대시 정책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문은 미국이 먼저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요구한 적대시 정책 철회는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이나 북미 수교, 평화협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입장에선 북한에 상응 조치로 줄 수 있는 협상 카드를 미리 포기라하는 말로도 들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미회담 조기 성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유엔 "북한 주민 절반 가까이 영양 부족…아이티 이어 2위"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 (VOA 자료사진)〉

북한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월 14일 보도했다.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산하 5개 국제기구는 13일(현지시간) 각국의 영양상태를 조사한 연례보고서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상태를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6~2019년 북한 주민 약 1천220만 명이 지속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47.6%에 해당한다.

북한은 전 국민의 48.2%가 영양 부족에 노

출된 아이티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2015~2017년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조사(43.4%)보다 영양 부족 인구가 4.2%포인트 증가,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영양 공급 상태가 악화했음을 보여줬다.

북한 어린이의 영양 공급 상황은 상대적으로 호전됐다. 지난해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 비율은 19%로, 2012년 28%에서 9%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5세 미만 과체중 어린이 비율 역시 0.1%에서 2.3%로 늘었다.

15~49세 북한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은 2012년 30%에서 32.5%로 다소 상승했다. (참고: 연합뉴스, 7월 14일)

+ 통일부, 등록법인 25곳 사무검사 착수...절반은 탈북민단체



통일부는 최근 문제가 된 대북전단 살포 건을 계기로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7월 16일 밝혔다. 통일부는 당초 7월 말쯤 방문 등을 통한 사무검사를 예상했으나, 일정 조율 등의 과정에서 착수 시점은 8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상황을 감안해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최근 상황'이란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의미한다. 다만 "최근 전단살포 문제가 등록단체 법인들의 사무검사 실시 계기가 됐다는 것이지 대북전단 살포 문제만을 갖고 검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1차 사무검사 대상은 등록법인 25곳이며, 이중 탈북민이 법인대표인 등록법인은 절반 이상인 13곳이다. 1차 대상은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의 등록법인 95곳 가운데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곳들을 추렸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분야 중심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되 추후 여타 분야로 사무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사무검사 성격에 대해선 "강제 수사권은 없고 협조를 바탕으로 사실에 대해 알아보는 행위"라고 말했다.

사업수행 내용과 운영·관리상 문제 등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정관상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내용의 일치 여부도 볼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법인 사무검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사무검사 대상인 탈북민단체와 북한인권단체 등은 통일부가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면서, 검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7월 22일 성명을 통해 "통일부가 등록 단체 중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지원 단체만을 골라 검사를 실시하고, 단체 유지 요건을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고: 연합뉴스, 7월 16일 / SBS뉴스, 7월 24일)

+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 부임. "대화복원, 인도적인 협력은 즉각적으로 실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7월 27일부터 임기에 들어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가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대화복원, 인도적인 협력은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남북이 합의한 것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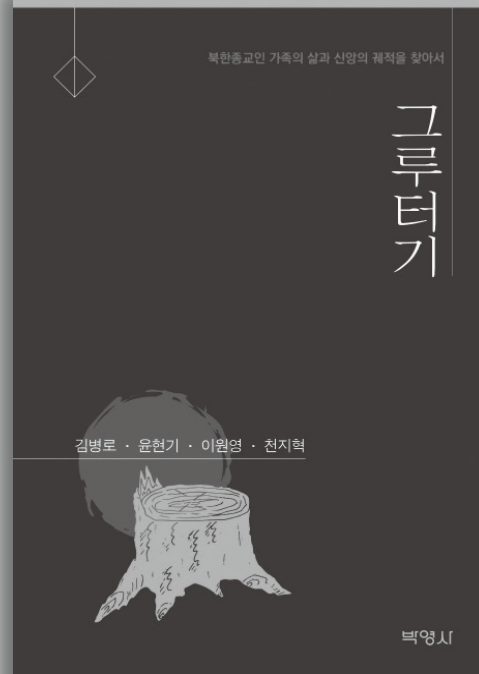
이 장관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이날 오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 특사로 평양에 방문할 의사가 있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문에 '평양 특사'로 북한에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의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미국 대통령선거 때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미 대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낙관하지만은 않는 모습이었다.

그 외에 이 후보자의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전력을 놓고 사상검증을 시도하려는 야당과 이 후보자가 날을 세우기도 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그루터기 -
북한종교인 가족의 삶과
신앙의 궤적을 찾아서

저자: 김병로, 윤현기, 이원영, 천지혁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년 05월 27일

가격: 13,000원

분단 이전 한반도 기독교의 중심 지역은 이북이었다. 그렇지만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고, 그 이후 북한 정권의 본격적인 핍박이 거세지면서 성도들이 큰 환란과 핍박을 당했다. 워낙 극심한 박해가 이어지다 보니 어떤 이는 종교 말살 정책 하에 남은 성도가 거의 없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조부모나 고조부모에서부터 지금까지 비밀리에 복음을 전수받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성도들의 존재를 확인하곤 한다. 그 중에는 신앙을 철저하게 이어온 가족도 있지만 부모가 차마 자녀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다만 삶에

서, 또 신앙적인 습관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나중에 복음을 들었을 때 부모의 신앙을 확인하는 일들도 있다. 이전에 한 현장사역자로부터 자기 자녀를 전도하기 위해 수십년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한 자매를 중국에서 만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으로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의 감동은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자료를 남길수도 없는 일이다. 귀한 성도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소위 그루터기라고 불리우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성도들의 존재와 규모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다. 북한 내 기독교인들의 존재

에 대한 이슈는 교회사적으로뿐 아니라 북한 선교의 방향성과 통일 이후 교회 재건 등 여러 이슈들과 연관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제대로 된 자료가 부족하여 연구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출간된 책 “그루터기”는 특별히 과거 조상들로부터 신앙을 이어온 그루터기 신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다.

책의 초반부는 기존 문헌 자료와 북한 당국의 정책, 그리고 실제 남북 교류 활성화 시기의 방문기록 등을 바탕으로 북한 성도들의 대략적인 존재 현황을 추적한다. 먼저 해방 이후,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극심한 박해기 등을 따라가면서 북한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의 행방과 그 규모를 해방 이전 약 30만에서 한국 전쟁 이전 20만, 전쟁 이후 10만 정도로 추정했다. 이어 북한 내 종교정책의 변화와 박해 양상의 변화를 서술하는데 일반적인 책들보다 상당히 꼼꼼하게 관련 내용을 추적했다고 생각된다. 이어 북한의 관제 교회와 그 신자들에 대해서 고찰해본다. 이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기독교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중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책의 중반부는 현재는 탈북한 그루터기 성도 또는 그루터기 성도의 가족 10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에서 어떻게 그루터기 성도들이 생존했고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다루는 이들 중에는 한국전쟁 이후 오지로 추방된 성도들의 가족들이 많고,

조그련과 연관 있는 엘리트의 가족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앞선 챕터에서 묘사된 학술적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심층 면접 부분을 꼼꼼하게 읽은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개인적으로 눈에 띈 점은 문헌 및 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한 학술적 연구 방식과 절제된 서술이다. 그 동안 관련 주제의 책들이 대체로 감동적이고 극적인 서술과 증언을 주로 담는데 애쓰면서 정작 그에 대한 검증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이 책의 가치가 돋보인다. 특히 그루터기 가족들을 묘사한 심층 인터뷰가 인상 깊었다. 보통은 그저 몇 문단 정도로 서술되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추방 등의 내용이 인터뷰를 통해 완성되는 느낌이었다. 복음으로 인해 기꺼이 박해를 받고, 또 그 박해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자 애쓴 추방 성도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형식은 연구 인터뷰이지만 큰 감동이 있었고 실제 박해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거기에 국가 기독교 조직에 속해있는, 어쩌보면 배교자의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들의 신앙생활과 가족생활 등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었다.

다만 보수적인 서술이 못내 아쉬운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해방 직후 30만으로 추정되는 성도들이 교회와 북한 당국의 충돌과 박해로 전쟁 이전 북한 당국의 조사에서 2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서술하는데, 물리적 탄압과 반기독교 정책으로 신앙을 버리는 것 외에도 조

그런데 대한 불신 때문에 교회를 떠난 신앙인들의 숫자도 제해진 수치이다. 즉 북한 당국이 카운트한 숫자에는 잡히지 않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후 서술이 북한 당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점은 아쉽다. 물론 제대로 된 통계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겠다. 그 외에도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탈북한 인원을 약 30만으로 보고 그 중 일부 신자들이 있지만 북한의 정보원 침투 및 제대로 신앙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탈북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오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비록 규모는 매우 줄어들었지만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탈북자 규모나 국경 사역 성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의 또다른 매력은 자료를 바탕으로 둔 연구에서부터 신앙적인 반성과 성찰로 이어지는 구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책 말미로 가면 그루터기 신자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성찰하고, 특히 형제, 자매된 북녘의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을 잊고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선교와 통일 이후 교회의 청사진 속에 그루터기 교회에 대한 존중과 도움의 자세가 있어야 하며, 함께 치유와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왜 우리가 북한 그루터기 신자들의 행방에 대해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결론과 같이 이 땅에 사는 성도라면 북녘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기도와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책 속에서 저자들이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의 그루터기 성도, 지하교회 성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갈길이 멀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은 칠천명”과 같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땅을 기도로 지키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믿음의 그루터기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 기도가 필요할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북한인 만큼 연구의 한계는 있겠지만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가운데 한국 교회의 성찰과 갱신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하며 일독을 권해본다.

1. 북한 경제와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북제재에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버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기존의 빈곤층과 보통의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질병의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극심해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주민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위기 속에 핵을 부여잡고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한반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북한의 경제상황 변화는 핵문제로 대표되는 정치적 이슈 및 개혁 개방 등 북한 사회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계속해서 악화되는 북한 경제 상황이 단순히 우연히 닥친 것이 아닌 북한과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영광받으시는 통일, 복음적 가치 속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통일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 2020년 발표에서 북한은 19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박해 가운데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안전을 위해,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나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4.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인 북한에서도 비밀리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박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선조로부터의 신앙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을 잊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박해에도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앞으로 통일 한국 교회를 보게 될 때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또한 고난 중에 피워낸 신앙의 유산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섬기는 데 놀랍게 사용되도록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라디오 사역을 비롯하여 북한 성도들에게 절실한 영육간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의 지원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제3국 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귀한 기도의 응답으로 선교 현장의 코로나19 바 이러스로 인한 통제가 일부 완화되고, 비자 등의 문제도 점차 개선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교역도 일부 재개되는 정황이 관측되는 등 현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선교현장은 경색 국면이고 적극적 사역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의 건강함과 안전을 위해, 또 앞으로 사역의 문이 더 넓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제3국의 사역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외진 농촌지역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운데서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북한 여성들, 그리고 제3국을 비롯한 각국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 라디오 방송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북한의 국경통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가운데서도 라디오는 복음을 신고 지금도 복녜를 향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갈 급함과 사모함으로 비밀리에 라디오를 들으며 전파를 통해 들려오는 복음의 메시지에 위로와 용기를 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북 복음 라디오 방송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방송이 깨끗한 음질로 전달되고 들려져서 매일 밤마다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 땅 가운데 들려지도록 기도해주시요.

7.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제약이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교회들이 자칫 선교의 열정을 상실하고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갱신과 지경의 확장이라는 축복으로 승화되길 기도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고, 다양한 경로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받을 갈고 씨를 뿌리며 선교의 열정이 더 크게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가운데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0년 8월 1일

월드와치리스트
2020

World Watch List

크리스찬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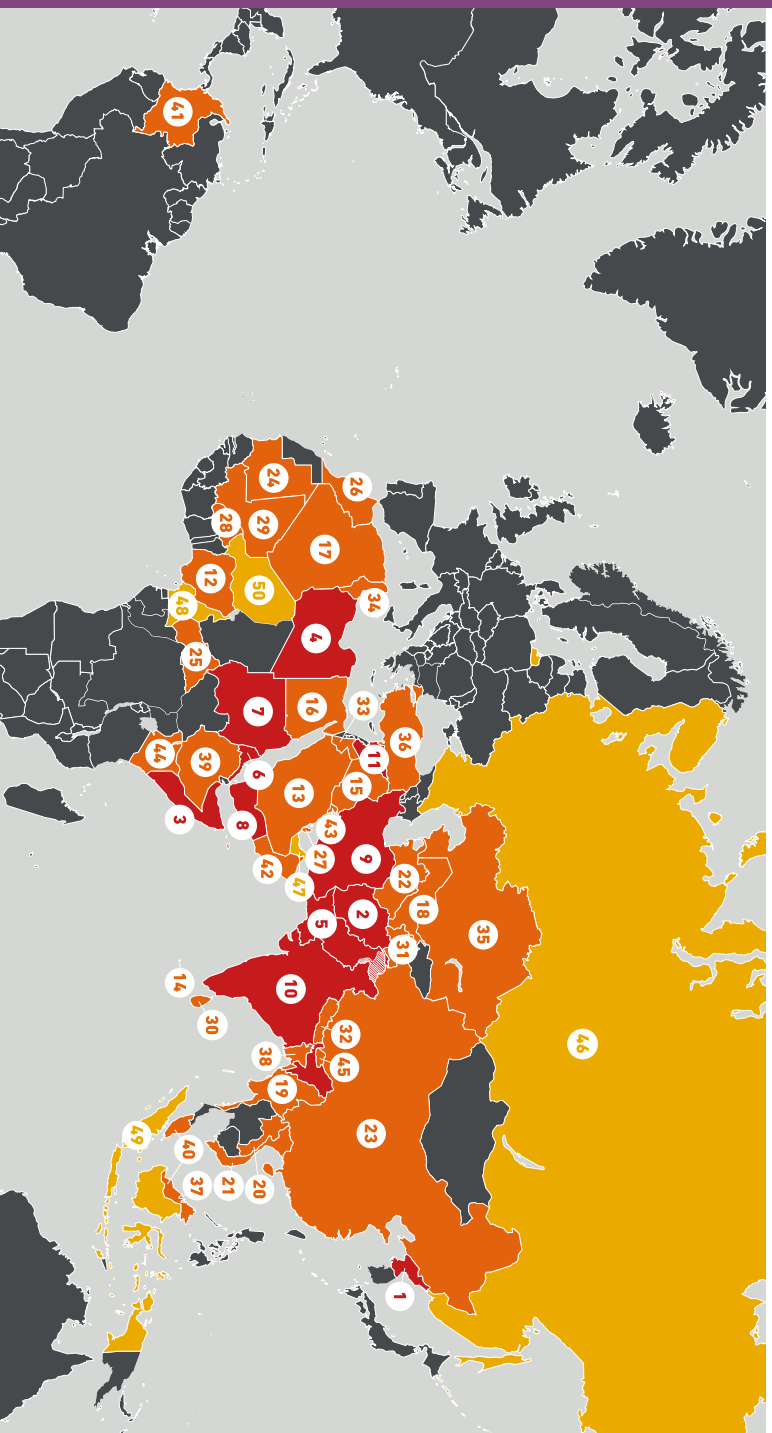
1	북한	28	모로코
2	아프가니스탄	29	카타르
3	소말리아	30	부르키나파소
4	러비아	31	말리
5	파프스탄	32	소리랑키
6	에리트레아	33	타지키스탄
7	수단	34	니بال
8	에티	35	오만
9	이란	36	튀니지
10	인도	37	카자흐스탄
11	시리아	38	터키
12	나이지리아	39	브루나이
13	사우디아라비아	40	방글라데시
14	콜라트	41	아르메니아
15	이라크	42	말레이시아
16	아랍	43	팔레스타인
17	알제리	44	요안
18	우즈베키스탄	45	쿠웨이트
19	미얀마	46	케냐
20	라오스	47	리비아
21	베트남	48	라이베리아
22	투르크메니스탄	49	아랍에미리트(UAE)
23	중국	50	카메룬
24	모리타니아		
2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1	니제르

부속 1

● 극단적인 수준의 배려 ● 매우 높은 수준의 배려 ● 높은 수준의 배려

오펜도어 헬도버겐만스트는 크리스스텐 배려가 가장 심한 쪽에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보도보고'에 종합적으로 사회평가를 지표로 삼아 오펜도어만스당이 1996년 국외 정책으로 처음으로 실시한 리더십을 공화국에 분석하고 있다. 각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오펜도어만스당은 평가점수 3단계의 요소를 포함한다. 이것은 북극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스텐이 개인과 정보 교환과 리더십을 선택하는데 얼마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오른도어의 조사 방법과 결과물은 국제종교자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검사를 받습니다. WWJ 2020 데이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크리스천회는 교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리메시는 스티븐카바티칼로바 교회에서 2019년 부활주일에 거실폭탄테러범이 시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라고 크리스찬티는 말합니다.

“자신이 발생한 다음 날 밤에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정말 강해요. 남편은 정말 사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셨습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세계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티와 또 같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테러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후원물품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시드려요.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해 우리를 후원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네요.”



“황제를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서 15:30

www.opendoors.or.kr